

증거가 천지인데... 군대 가겠다고 한 적 없다?

SBS '한밤의 TV연예' 인터뷰서 "내입으로 군대 가겠다고 한 적 없다" 누리꾼들 과거 인터뷰 영상 공개 유승준 향한 조롱섞인 비난 폭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한국 입국에 대한 강한 집념이 또다시 스스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그는 20일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처음에 군대에 가겠다고 제 입으로 말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여론과 상황에 떠밀렸을 뿐, 병역 기피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모으고 있다.

유승준은 17일 밤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군대에 간다고 했다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대중의) 허탈감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 입으로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막 떠밀렸던 것 같다. 어리고 잘하려는 마음으로 '(군대)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말했던 게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다"고 말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유승준이 과거 한창 활동할 당시 각종 방송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군 입대와 관련해 언급한 발언을 공유하고 있다. 남성 누리꾼들은 "우라도 한번도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입영통지서 받고 입대했다"며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병역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꼬집었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의 의무에 대해 대체 어떻게 말했을까. 그가 한창 활동하던 1990년대 말부터 영구 입국할 수 없게 된 2002년 초까지 그가 내놓은 발언을 정리했다.

●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았다. 다만 팬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년간 입영을 연기하겠다." "국내법에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영원히 한국에서 살기 위해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 당연히 응하겠다." (2001년 2월27일 일간스포츠 보도)



여전히 병역의 의무 기피 의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승준.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7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2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뭐... 어떤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국민으로서 처해진 그런 환경을 제가 주어진 대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그걸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8월7일 대구지방방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후)

●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하는 것." "남자는 때가 되면 (군대에) 들어가 돼 있고." (코미디TV 화면 자료 영상)

유승준은 징병 신체검사를 통해 2001년 9월1일 공익근무 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1월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후 같은 달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같은 해 1월23일 한국 국적 상실을 신고해 병역 의무가 자동 소멸됐다.

● "당시에는 병역 의무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어서 당연히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 신청 이후에야 한국에서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대한 시민권 발급 시기를 미루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 목표를 위해 시민권을 받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더 쉽사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어 오랫동안 고민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오더라도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대와 관련해 팬들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 스스로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

(2002년 1월 MBC 'PD수첩'.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이미 그 2년 전인 2000년에 신청했던 사실을 직접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모았다)

● "국민 여러분을 우롱하거나 의도적인 계획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2년 반 동안의 사회복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된다.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 과도 마찬가지이고, 나이도 있고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저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반복은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2002년 2월2일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당한 뒤 MBC '섹션TV 연예통신'이 공개한 발언)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유승준측 변호사의 주장

"한국 거주·활동을 위해 입국하려는 것 아니다"

가수 유승준이 "거주 및 활동,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한국 입국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유한(유승준 수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그가 영리활동과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입국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변호사는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였고, 법적으로도 다투기가 용이해 변호사들이 권유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비자 취득권자는 선거권을 빼고 내국인처럼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유승준이 입국 뒤 연예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2월 정부가 입국을 불허하자 2015년 9월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 변호사는 "이런 사안(병역기피 의혹)으로 20년 가까이 입국 거부 당한 유일한 경우다. 가수로서 대중의 판단을 받는 것과 별개로 헌법적으로 정당한 권력 행사인지 따져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유승준의 입국 희망은 여느 재외동포들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거주 시간이 길어 그리운 마음이 있다. 게다가 다른 가족들은 다 가는데 왜 아버지만 한국을 못 가느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입국한다면 과거 결정에 대한 후회와 사죄를 직접 대중에 전하고 싶어 한다. (한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아들과 딸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지혜!

행복과 성공의 비밀

"아버·엄마가 아들·딸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책!"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모르는 세상 속 이야기!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인생 가이드 책!

저자 강일규 / 값 12,000원

현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행복과 성공의 문을 여는 선물이야!

전국 유명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www.alps-home.co.kr

식어도 맛있는 천하 일미 닭강정

● 옛날풍 닭, 치킨, 동집튀김

- ※ 10년동안 맛이 입증되었습니다.
- ※ 한방 약재를 직접 달여 넣어 집냄새가 없습니다.
- ※ 쌀 파우더로 바삭바삭~
- ※ 다음날 먹어도 맛있습니다. *모든 부재료 공급

주)그린월드 080-080-9595

일산 주엽역 바로 근접

대형 매장 임대, 주차장 완비

1층 6평 2층 전체 200평
보증금 3억3천 / 월세 820만원
(부가세별도) 권리금 5천
☎ 010-7101-4091

싼 전원주택 매매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토지 2,165㎡ (656P) 건물 92㎡ (28P)
금액 3억6천 용자 8천만원 있음
1가구 2주택 해당없음 5년 자격후 양도세, 비과세 소하천 접합, 주택전기 무료, 심야 농업 전기, 살림살이 일체 제공
주인 010-5245-1708

서초동대로변 시세대비 30%이상저렴

대출 60%이상

★1층 자동차 전시장 3.3㎡ / 5,800만!! 계약면적 733㎡ 130억 (부가세별도) 보 10억 / 4천만 3개 호실임 일부호실 가능	★1층 3.3㎡/2,800만 성형외과 중 일부 계약면적 67㎡ 5.7억 (부가세별도) 보 2.5천 / 월 206만원 그 외 1층, 2층 병원
---	---

김소장 010-5849-0015

인천초역세권 신축상가주택

매가 14억 전철역 도보 5분 주차완비

보증금 주택 12세대 1억2000만원 상가 6000만원
세대 월세 360만원 상가 월세 100만원
대지 38 건평 96 총12세대 상가 2개 총14실
주인직접거래 010-2068-1600

중년남자의 자존심. 지구력!!

이름 그대로... **젤센**

구입 및 대리점 문의 : 010-5557-9585

신용불량자 요금연체자

갤럭시 S10 5G / 아이폰XS MAX 할부개통 가능

휴대폰 현금

당장 쓰실분 현금 100~390만원 즉시지급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백화점 상품권증정

010-2439-2555 전국 출장 가능 (제주도 가능) (주정바론통신)

지역별 영업 지사 모집

창문형 나노 방진 필터(방진망) 알프스-홈

초 미세먼지 아무리 많은 날에도 우리집은 창문 활짝 열고 환기 시킨다

- ★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중국 발 미세먼지 쓰나미가 밀려오는 환경 속에 생활하면서 마음 놓고 환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 알프스-홈 나노 방진 필터(방진망)는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실내환기 문제를 해결합니다.

Alps-home
창문형 나노 방진필터

- 뛰어난 통풍과 방진 기능으로 공기청정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미세상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맑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합니다.
- 지사 개설은 무점포 개념이며 설치 시공 등 운영을 위한 지원은 회사가 합니다.

1. TV(IP)광고를 지원합니다.
2. 철저한 교육과 영업 가이드, 영업자료를 지원합니다.
3. 공동주택 대상의 공동구매 마케팅 전보를 지원합니다.

모집기간 : 2019. 09. 30 까지
상담문의 : T. 1522-1893

T. 031-222-8500 F. 031-222-3977
www.alps-home.co.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평로 180번길 42-6(비봉빌딩 402호)